

주요 산업 · 통상 정보

-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실 -

(2015.2.6)

제목 : 향후 유가(油價)전망

□ 핵심요지 :

- 최근의 국제유가 반등으로 국제 석유시장이 균형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일부의 전망도 제기되고 있으나, 월가의 다수 투자은행들은 공급과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.

□ 주요 내용

1. 최근 유가 동향 및 배경

- 미국 벤치마크 유가가 최근 상승(2.3기준 배럴당 53.05달러)한 것은 메이저 에너지 기업의 투자 축소 계획 발표, 석유 시추정(drilling rigs) 숫자의 감소, 일부 정유 업체의 근로자 파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된 결과임.
- 월가의 일부 견해는 석유시장이 균형으로 회복(coming back into balance)하고 있으며, 조정 메커니즘(correcting mechanism)이 발동되고 있어 유가가 바닥을 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
2. 향후 전망

- 유가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으며,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음.
 - 우선, 역사적으로 유가가 장기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상승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일정 범위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음.

- 아울러, 미국 내 상업용 원유재고(commercial crude-oil inventories)가 최근 4억 2천만배럴에 육박하는 등 공급 초과요인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.
 - 미국 내 시추정의 숫자(최대 2,000여 개, 2014.12월말 기준 1,539개)도 아직까지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며, 유가가 40달러 대 수준이 지속되어야 시추정의 운영규모가 대폭 감축될 것임.
 -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정유시설이 정비기간에 들어가는 2~3월에는 (정유 시설의) 원유수요 감소로 유가가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.
- 아울러, 바클리(Barclay), 소시에테 제너럴(Societe Generale), 유비에스(UBS)와 같은 투자은행들은 공급과잉이 빠른 시간 내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의 유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으며, 일부 분석가들은 30달러 대 수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.

/끝/